

# SK케미칼, 바이오 사업 “확대”

## 안동시와 양해각서 체결 ... 3만3000평방미터에 1000억원 투자

안동시와 SK케미칼(대표 이문석)이 바이오 No.2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이인석 SK케미칼 사장은 7월11일 오후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2013년 말 예정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안동 백신공장 맞은편에 3년간 1000억원을 투자해 3만 3000평방미터의 바이오 No.2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SK케미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며 바이오 No.2 공장의 준공으로 안동시에 14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 1200억원을 투자해 안동 백신공장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양해각서 체결은 안동이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7/10>